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1. 30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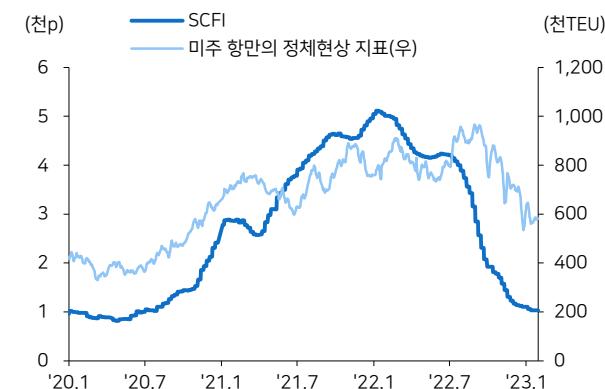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676.0p(-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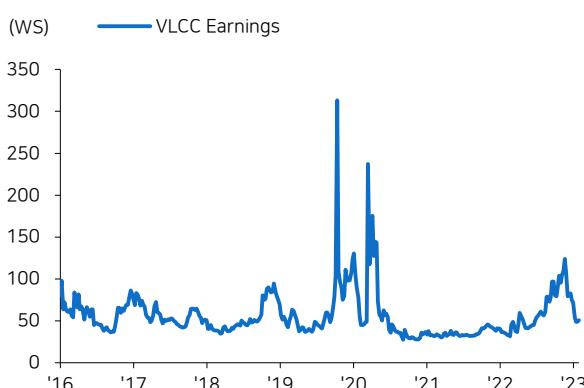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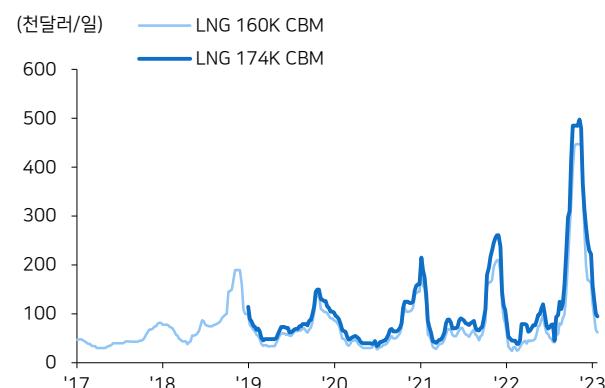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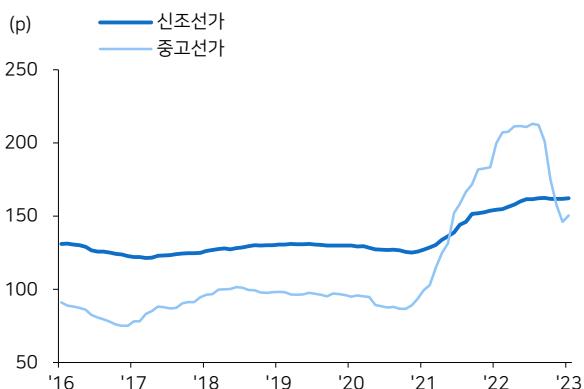
50.8p(+1.9p WoW)



LNG Spot 운임

62.5p(-5.0p WoW)
94.8p(-5.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7p(-0.0p WoW)
150.3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60.8p(+2.1p DoD)
107.5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국, 일본인 비자발급 재개…한국인 비자제한 당분간 유지할 듯

중국이 29일 일본의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꺼내든 일반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19일만에 해제했다고 보도됨. 일본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음. 그러나 한국에 대한 조치는 변동이 없다고 알려짐. 한편, 한국은 1월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외항사 '한국 하늘길' 공세…코로나 전보다 비행기 더 띄운다

외국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을 빠르게 늘리며 국제선 여객시장을 적극공략하고 있다고 보도됨. 국내 방역당국의 입국 규제해제가 외국에 비해 늦어지며 국적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증편이 주춤했다고 언급됨. 29일 기준 국적항공사 8곳의 국제선 좌석 공급은 약 162만석으로 COVID-19 직전 대비 52.9% 수준임. 외항사 67곳에서 중국과 일본 항공사를 제외하면 국제선 공급규모는 73%까지 회복했다고 언급됨. (한국경제)

Russia looks to crude export spike as new ban looms

유럽 제재에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EU는 2월 5일부로 디젤 등 고가 정제유에 100달러/배럴, 저가 정제유에는 54달러/배럴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임. 현재 디젤유는 110~115달러/배럴 수준으로 알려짐. 이미 러시아 정유업체들은 마진이 타이트한 상황이라 가격상한제 시행 시 생산량을 줄이고,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됨. 지난 12월 기준 유럽향 디젤유 수출량은 700,000배럴/일인데, 신규 구매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올해 선박발주 작년 절반수준"…LNG선 강한 韓조선 영향 제한적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신조선 발주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도됨. 다만, 한국 조선업계는 최소 3년치 수주잔량을 확보했고, LNG운반선 선가 상승으로 발주 감소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짐. 2023년 전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49% 감소, 발주액은 51% 감소한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언급됨. 국내 조선소는 수주량 48% 감소, 수주액 52% 감소로 언급됨. 2023년초 기준 국내 수주잔고는 3,750만CGT로 3.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고 언급됨. (연합뉴스)

MOL sees car carrier spaces easing up but sector still facing tonnage shortage

일본 MOL에 따르면, 컨테이너운임 하락이 PCTC 수요를 잠시 잠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PCTC 공급부족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도됨. 최근 컨테이너운임 하락으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부족한 PCTC대신 컨테이너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됨. 팬데믹으로 글로벌 선대는 15% 가량 감소했다고 언급됨. (Tradewinds)

Eni joint venture advances \$8 billion Libya giant gas project

Eni와 리비아 국영석유공사(NOC)가 대규모 Structures A&E 가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탄소포획 및 저장 설비 등을 구축하는데 80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짐. FID는 2023년에 결정될 것으로 언급됨. 2026년에 750MMCF/D(일일백만 큐빅피트)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됨. (Upstream)